

2021학년도 모의논술고사[사회계]

1. 2021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아]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을 담고 있다. [가], [다], [라], [바], [아]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나], [마], [사]는 시간을 단기적으로 보며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가]는 단기의 고통을 참고 천고에 사라지지 않을 이상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다]는 인구문제는 감염병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라]는 헌법은 항구적·불변적인 원칙들을 규정·선언한 것이므로 그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바]는 당장의 수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는 그리스 정부가 눈앞의 문제만 생각하고 장기적 고려를 하지 못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나]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교훈을 준다. [마]는 ‘주52시간’ 제도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임금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심폐소생술로 우선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문제 2]

제시문 [자]는 시간에 대한 베르그송의 철학적 관점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길거나 짧게 구분하는 물리적 시간은 참다운 시간이 아니고 실용적 의미만 지닐 뿐이다. 참다운 시간은 각자의 체험이고 각자가 달리 느끼는 것이다.

베르그송의 관점에서는 제시문 [사]와 [아]가 공통되게 시간을 물리적·실용적 차원으로만 이해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단기 부양책으로 살리는 방안을 주장하는 가운데 개인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에서는 역으로 국가 장기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경시한다. 베르그송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일반화해서 단거나 장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각 개인의 체험을 소중하게 공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와 [아]의 관점에서는 물리적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를 이뤄 함께 살고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때론 짧고 때론 길게 구분해봐야 한다. 그래야 경제나 재정에 관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의 철학적 시간 개념은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으나 사회를 가꾸가는 데는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할 수 있다.

[문제 3]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지급되었을 때) 향후 10년 동안 어떤 해에 고용된 유형 A, B의 사람 수를 나타내는 확률변수를 각각 X_A , X_B (Y_A , Y_B)라고 하자.

(1) Y_B 는 시행의 횟수가 400이고 성공확률이 0.8인 이항분포를 따른다: ($Y_B \sim B(400, 0.8)$). 그런데 시행 횟수(n)가 크고 성공확률이 p 인 이항분포는 평균이 np 이고 분산이 $np(1-p)$ 인 정규분포로 근사하여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유형 B의 사람들 중 324명 이상이 고용될 확률을 정규분포로 근사한 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다.

$$P(Y_B \geq 324) = P(Z \geq \frac{324 - 320}{8}) = P(Z \geq 0.5) = 0.5 - 0.191 = 0.309$$

(2) 정부의 기대재정수입: 기대 고용자로부터 거둬들일 세금

정부의 기대재정지출: 기대 실업자에게 지불할 실업급여+1회 고용지원금(지불할 경우에만 해당)

각각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정부의 기대수입과 기대지출은 다음과 같다.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매해 $E(Y_A) = 100 \times 0.9 = 90$ 명, $E(Y_B) = 400 \times 0.8 = 320$ 명이다.

-매해 유형 A 고용자로부터 $90 \times 20 \times 0.1 = 180$ 냥, 유형 B 고용자로부터 $320 \times 10 \times 0.1 = 320$ 냥, 총 금화 500냥, 즉, 향후 10년간 총 기대 재정수입은 금화 5,000냥이다.

-매해 유형 A 실업자에게 $10 \times 2 = 20$ 냥, 유형 B 실업자에게 $80 \times 2 = 160$ 냥, 총 금화 180냥, 즉, 향후 10년 동안 기대 실업급여 총액은 금화 1,800냥이다. 또한, 고용지원금은 총 3,000냥이므로 향후 10년 동안 총 기대 재정 지출은 금화 4,800냥이다.

-따라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면 10년 동안 기대 재정 수지는 금화 200냥 흑자다.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해 $E(X_A) = 100 \times 0.8 = 80$ 명, $E(X_B) = 400 \times 0.5 = 200$ 명이다.

-매해 유형 A 고용자로부터 $80 \times 20 \times 0.1 = 160$ 냥, 유형 B 고용자로부터 $200 \times 10 \times 0.1 = 200$ 냥, 총 금화 360냥, 즉, 향후 10년 동안 기대 재정 수입은 금화 3,600냥이다.

-매해 유형 A 실업자에게 $20 \times 2 = 40$ 냥, 유형 B 실업자에게 $200 \times 2 = 400$ 냥, 총 금화 440냥, 즉, 향후 10년 동안 기대 실업급여 총액은 금화 4,400냥이다.

-따라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기대 재정 수지는 금화 800냥 적자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제시문 [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바이러스 유행 시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당해에는 재정 적자가 예상되지만, 향후 10년 동안 기대 실업률을 낮추어 실업급여 지출은 줄고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2021학년도 모의논술고사문항 해설 (출제범위 포함)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모의논술고사는 시간에 대한 관점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사회에 있어서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과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개인에 초점을 맞춰 시간을 이해하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장단기 관점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평가할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대해 사회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반박할지를 논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장단기 관점을 적절히 이해하는지, 장기적·단기적 고려 각각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조화롭게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모의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의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수리 계산에 관한 문제도 고등학교 교과과정 범위 내인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서 출제되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는 단기의 고통을 참고 천고에 사라지지 않을 이상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나]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교훈을 준다. [다]는 인구문제는 감염병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라]는 헌법은 항구적·불변적인 원칙들을 규정·선언한 것이므로 그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마]는 ‘주52시간’ 제도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임금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바]는 당장의 수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심폐소생술로 우선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아]는 그리스 정부가 눈앞의 문제만 생각하고 장기적 고려를 하지 못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자]는 시간에 대한 베르그송의 철학적 관점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길거나 짧게 구분하는 물리적 시간은 참다운 시간이 아니고 실용적 의미만 지닐 뿐이다. 참다운 시간은 각자의 체험이고 각자가 달리 느끼는 것이다.

사회계 모의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논제 1, 2), 수리논술 1문제(논제 3), 총 3문제로 구성되었다.

<논제 1>은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첫 번째 관점은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을 단기적으로 보며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응시생들은 주어진 제시문들을 두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제 2>는 베르그송의 철학적 관점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사회적 장기적·단기적 관점을 각각 어떻게 비판적으로 평가할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대해 사회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반박할지를 논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베르그송은 시간을 개인적 체험의 관점에서 이해하였고, 사회적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든 단기적으로 보든 각 개인의 체험적 상황을 경시해선 곤란하다고 비판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관점에서는, 실용적으로 사회문제를 다루고 풀기 위해 시간을 때론 길고 때론 짧게 구분해봐야 한다고 반박할 것이다. 응시생들은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제 3>은 경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수리적 모형을 적절히 구성하고, 이를 해석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나오는 이항분포, 정규분포,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수리능력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추론 능력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 출처> (모든 경우에 재구성 및 윤문, 또는 번역을 거침)

제시문[가]

민태원, “청춘예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제시문[나]

톨스토이, 『세가지 질문』

제시문[다]

이철희, 한국일보 칼럼, 2020년 2월 25일자.

“인구문제,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만성질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470725>

제시문[라]

Edward S. Corwin, “The Higher Law Background of American Constitutional Law”

제시문[마]

비즈니스 플러스, 2018년 2월28일, 윤정원 기자.

“근로시간 단축 우리는 반대합니다”

기사원문: <http://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7>

제시문[바]

비상교육 『사회문화』

“무너져 내리는 빙하 속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 (p. 12)

제시문[사]

구재이, 경향신문 칼럼 (2020. 4. 7)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그리고 재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046005&code=990100&utm_campaign=list_click&utm_source=reporter_article&utm_medium=referral&utm_content=%B1%B8%C0%E7%C0%CC_%B1%E2%C0%DA%C6%E4%C0%CC%C1%F6

제시문[아]

미래엔 『경제』 교과서

“그리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불러온 경제 위기” (p. 76)

제시문[자]

꿈꾸는 십대를 위한 이야기: 자모 지니어스 (자음과 모음)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mogenius/221313946429>

“베르그송의 삶의 철학, 시간을 알아보자!” 작성자 자모 지니어스